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영역 해설

1. ‘ 짜임’에 관한 문항이다. 제시된 그림은 ‘生’자로, 초목이 나고 차츰 자라서 땅 위에 나온 모양을 본뜬 상형(象形)자이다. 아래의 ‘一’은 땅을, 위의 ‘ ’은 풀이 자람을 본떴다.
① 天 : ‘大 + 一’ ‘大’는 사람, ‘一’은 사람의 머리 위에 있어 끝없이 넓은 것, 곧 ‘하늘’이란 뜻을 나타낸다.<회의> ② 王 : 가로로 그은 세 획은 세 개의 옥돌, 세로로 그은 한 획은 옥돌을 맨 끈, 합하여 패옥(佩玉)을 상형한 것.<상형> ④ 牛 : 머리와 두 뿔이 솟고,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소의 모양을 본뜬 글자.<상형> ⑤ 石 : 언덕[厂]아래 굴러 있는 돌맹이[口]를 본떴다.<상형>
2. ‘한자의 형·음·의 알기’에 관한 문항이다. ㉠은 ‘犬(견) 개’의 ‘모양[形]’을, ㉡은 ‘馬(마) 말’의 ‘음(音)’을, ㉢은 ‘風(풍) 바람’의 ‘뜻[義]’을 묻는 문제이다. 아울러 ‘犬’는 ‘大(대) 크다’와, ‘馬’는 ‘鳥(조) 새’와 ‘風’은 ‘雲(운) 구름’과 대비시킴으로써 한자의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구별하기와도 연계시켰다.
3.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에 관한 문항으로, □의 앞뒤로 3개의 한자가 결합하여 한자어가 이루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앞의 ‘完’, 뒤의 ‘功’과 ‘長’을 결합하여 자연스러운 한자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②의 ‘成’자이다. 完(成), (成)功, (成)長
4. ‘한자어를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에 관한 문항이다. 그림과 함께 제시된 3가지 조건 중 ‘예를 숭상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데서 직접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⑤를 풀이하면 ‘예를[禮] 숭상하는[崇]하는 문[門]’이라는 뜻이 된다. 서울의 도성의 4대문의 명칭을 붙일 때, 오행(五行)의 원리에 따라 중앙의 보신각(普信閣)을 중심으로 동서남북(東西南北)의 방위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연관지어 동대문은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은 돈의문(敦義門), 남대문은 숭례문(崇禮門), 북대문은 홍지문[弘智門 - 후에 숙정문(肅靖門)이라 칭함] ③ 혜화문(창경궁의 동문) ④ 광화문(경복궁의 정문)
5. ‘한자어를 한글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로 ‘한글 문자의 뜻을 파악하여 관련 성어 찾기’에 관한 문항이다. 제시문의 ‘이곳을 보거든 먼저 의리(義理)에 합당한가를 생각한 다음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⑤ ‘견리사의’는 ‘이곳이 보일 때 의리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으로, 제시된 지문의 내용과 상통하는 말이다. ① 표리부동 : 마음이 음침맞아 겉과 속이 다름. ② 금상첨화 : 비단 위에 꽃을 보탠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생김. ↔ 雪上加霜(설상가상) ③ 감언이설 : 남의 비위를 맞추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만 들어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 ④ 발분망식 : 무슨 일을 이루려고 발분하여 끼니마저 잊고 힘 씀.
6. ‘한자어를 언어생활에 활용하기’로 그림에서 연상되는 한자어 찾는 문항이다. 제시된 그림은 한 늙은이가 높은 전망대에서 빌딩 숲을 바라보며 옛날 그 자리의 목가적(牧歌的)이던 풍경을 회상하며, ‘세상일이 덧없이 바뀌었음’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①의 ‘상전벽해’는 뽕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이 덧없이 바뀔을 말한다. ② 우이독경 :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둔한 사람은 아무리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 ③ 지

: 진나라 때 조고라는 간신이 왕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강변했다는 고사에서
 잊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④ 조삼모사 :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
 고 결과가 같은 줄을 모르는 것. 또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고 농락하는 것. ⑤ 결초보은
 : 은혜를 입은 사람이 혼령이 되어, 풀포기를 묶어 놓아 적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은
 인을 구해주었다는 고사에서, 죽어 혼령이 되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

7. ‘격언의 속뜻을 파악하여 문맥에 맞은 한자 찾기’에 관한 문항이다.

지혜로운 사람 때를 따르는 데서 일을 성공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를 거스르
 는 데서 일을 실패한다.

제시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의 형편에 맞추어 순리를 따르므로 성공하고, 어리
 석은 사람은 욕심을 앞세워 순리를 거스르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므로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다. 격언은 대개 대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는 바로 대우임을 나타내
 어 힌트가 된다. ㉠의 빈칸에 들어갈 한자의 상대자가 ‘智(지) 지혜롭다’이므로, ㉠ ‘愚(우)
 어리석다’가 정답이다. ㉡ (인) 어질다 ㉢ (신) 믿다 ㉣ (효) 효도 ㉤ (현) 어질다

8.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로, ‘說’자와 ‘易’자의 문맥적 독음을 파악하
 는 문항이다.

◦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 산중의 도적을 깨뜨리기가 쉬우나, 자신의 마음속의 도적을 깨뜨리기가 어렵다.

전자는 사람은 무엇보다 성현의 도를 배우고 배운 것을 수시로 익혀 자신을 깨쳐가는 것
 이 가장 큰 기쁘다 뜻이며, 후자는 사람 마음이 나쁜 것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
 다. ‘說’의 음과 뜻은 ‘(설) 말씀’, ‘(열) 기쁘다’, ‘(세) 달래다’ 등 인데, ㉠의 문맥적인 의미
 가 ‘기쁘다’로 풀이되므로, 독음은 ‘열’이며, ‘易’의 음과 뜻은 ‘(이) 쉽다’, ‘(역) 바꾸다’ 등
 인데, ㉡은 ‘難(난) 어렵다’와 상대자 관계에 있어, 문맥적인 의미가 ‘쉽다’는 뜻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음은 ‘이’가 된다.

9. ‘한자어의 짜임을 통해 뜻을 알기’로, 시구의 문장 독해와 관련지는 활용 문항이다.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이,
 높고 낮음이 각기 다르다네.

㉠ ‘高低(고저)’는 ‘높고 낮음’으로 풀이되어 ‘대립 관계[상대어+상대어]’임을 알 수 있다.
 ㉡ ‘전후’는 ‘앞과 뒤’로 풀이되는 ‘대립 관계’의 한자어이다. ㉠ 수신 : 몸을 닦음<술목> ㉡
 상륙 : 물에 오름<술보> ㉢ 일출 : 해가 뜨<주술> ㉣ 성인 : 성스러운 사람<수식>

10. ‘격언의 속뜻을 파악하여 관련 한자어 찾기’에 관한 문항이다.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으로 인하여 학업을 폐지해서는 안 되고, 집이 만
 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함을 믿고서 학업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제시문은 ‘아무리 구차하더라도 구차한 것을 구실로 공부를 그만두어서는 안 되며, 집이
 부유할지라도 그 재산만 믿고 해야 할 공부까지 게을리 해서 안 된다.’ 뜻으로, 학문에

권장한 글, 즉 ④ ‘권학’을 강조한 글이다. ① 안빈 : 비록 가난한 생활일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냄. ② 권선 : 선행(善行)을 권장함. ③ 검소 : 치례하지 않고 수수함. 꾸밈없이 무던함. ⑤ 치부 :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11. ‘명언의 속뜻을 파악하여 관련 성어 찾기’에 관한 문항이다.

부모가 그 자식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비록 가르쳐도 엄하지 않으면 이도 역시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제시문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엄격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④의 ‘단기지계’는 맹자가 수학(修學) 도중에 나름대로 성취를 거두었고 자만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학문의 중단 없는 전진을 강조하기 위하여’ 찌고 있던 벼들의 낱실을 자르면서 엄히 훈계했다는 고사이다. ① 불치하문 : [학식, 지위, 나이 따위가]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② 혼정신성 : 저녁에 이부자리를 보고 아침에 부모의 안후를 살핀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핌을 이르는 말. ③ 일취월장 : 날로 달로 자라거나 나아감. ⑤ 교학상장 :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도움이 됨.

12. ‘우리말 속담과 관계있는 한문 속담 찾기’에 관한 문항이다. 제시문은 ‘鳥飛梨落(오비이락 :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이 공교롭게 다른 일과 동시에 발생되어 어떤 관계라도 있는 듯한 의심을 받게 된다는)’의 풀이와 교훈을 밝힌 것으로, ⑤의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바로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 받을 행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과 상통한다. ① 수우적강남 :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뜻으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친구의 권유로 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附和雷同(부화뇌동)과 상통한다. ② 음지전 양지변 : 음지가 바뀌어 양지로 변한다는 뜻으로, 부귀와 빈천은 돌고 돌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잘 살 때가 있다는 말이다. 塞翁之馬(새옹지마), 轉禍爲福(전화위복)과 상통한다. ③ 적공지탐 기훼호 : 공든 탑이 어찌 무너지랴? 라는 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이다. 至誠感天(지성감천)과 통한다. ④ 종과득과 종두득두 : 오이 심은데 오이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뜻으로, 인과(因果)의 법칙을 어길 수 없다는 말이다. 因果應報(인과응보)와 통한다.

13. ‘산문을 풀이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관한 문항이다.

(가) 백두산의 줄기가 뻗어내려 여기까지 이른 까닭에 또 다른 이름을 ‘두류’라 한다.
(나) 영남과 호남의 두 길이 교차하는 곳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높고 넓어 그 둘레가 몇 백리인 줄 모른다.

제시문의 (가)는 지리산의 별칭인 두류산의 유래, (나)는 지리산의 위치에 관한 글이다. 마천령 ㉠ 금강산 ㉡ 태백산 ㉢ 지리산 ㉣ 한라산

[14~15]

잘못이 있거늘 그 어머니가 그를 매질하니 울었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다른 날 매질할 때에는 네가 아예 운 적이 없더니 지금 우는 것은 어째서이냐?”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유(제)가 잘못을 얻어 매를 맞을 때 매질이 항상 아프더니, 지금은 어머니의 힘이 저로 하여금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14.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로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의 파악에 관한 문항이다. ㉠의 ‘타일’은 ‘다른 날’의 의미이므로, ㉠이 정답이다.

15.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로, 효성에 관한 문항이다. 전한 시대에 살았던 효자인 백유는 매를 맞는 순간에도 효심은 변함이 없다. 매가 아픈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약해진 기력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백유의 대답을 통해 그의 지극한 효심을 읽을 수 있다. ㉢의 ‘풍수지탄’은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는다)’의 준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나타낸다. ㉠ 새옹지마 : 옛날 북방의 한 늙은이가 기르던 말이 달아났다가 준마 한 필을 데려왔는데, 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 목숨을 구했다는 고사에서, 인생길은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 대기만성 : 남달리 뛰어난 큰 인물은 보통 사람보다 늦게 대성한다는 말. ㉣ 형설지공 : 고생하면서도 꾸준히 학문을 닦은 보람. ㉤ 설상가상 :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 격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남’을 비유한 말.

[16~17]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로, 강릉 지방의 경로 풍속에 관한 글의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강릉 풍속에 노인을 공경하여 매년 좋은 날이면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경치 좋은 곳에 모셔 놓고 위로했는데, 이름 하여 ‘청춘경로회’라고 했다. 비록 노비 같이 신분이 천한 사람일지라도 일흔 살이 넘은 사람은 모두 모임에 나오는 것을 허용되었다.

16.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에 관한 문항이다. ‘勝(승)’은 ‘이기다’, ‘뛰어나다’, ‘낫다’ 등으로 쓰이는데, ㉠의 문맥적 의미는 ‘뛰어나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경관이 뛰어나 이름난 곳과 역사상의 유적’이란 뜻을 가진 ㉣ 명승고적이 정답이다. ㉠ 승패 : 이김과 짐. ㉡ 승리 : 겨루거나 싸워서 이김. ㉢ 필승 : 반드시 이김. ㉤ 백전백승 :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김.

17.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에 관한 문항으로, 제시된 지문은 강릉 지방을 배경으로 한 경로 풍속에 관한 내용이다. 강릉 풍속에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좋은 날을 가려, 70세 이상 된 노인이면 신분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명승지에 모셔 놓고 잔치를 벌이며 위로했는데, 늙은이의 모임에 ‘청춘경로회’이란 역설적인 명칭을 붙인 것은 늙음에 대한 위로의 뜻과 아울러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단오’와는 무관하므로 ㉢이 정답이다.

[18~19]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항심(불변의 양심)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러서는 향산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항심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항심이 없어 바깥 유혹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방탕(放蕩)·편벽(偏僻)·사악(邪惡)·사치(奢侈) 등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죄에 빠진 연후에 뒤따라가서 처벌한다면 그것은 인민들을 그물질하여 잡는 격입니다.

18. 문장을 독해하여 문맥에 맞는 한자어 찾기에 관한 문항이다. 제시문은 맹자가 제(齊)나라 선왕(宣王)에게 유세를 할 때, 왕도정치(王道政治)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을 호소하였는데, 일반 민중의 경우는 향산(恒産 :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항심[恒心 : 불변(不變)이 양심]있을 수 없음을 설파한 것으로 왕도정치와 경제와의 관련성을 웅변으로 말해준 글이다. ‘일반 민중의 경우는 향산이 없으면 (㉠)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의 문맥으로 볼 때, ㉠의 답은 ‘㉠ 항심’임을 알 수 있다.

19. ‘허자의 쓰임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로, ‘於’의 용법에 관한 문제이다. ‘及陷__罪’가 ‘죄에 빠짐에 이르다.’로 풀이되므로, ㉠이 정답이다.

[20~21]

공주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를 반드시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시더니,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려 하십니까? 평민들도 오히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하는데 하물며 지존이신 임금께서야! 옛말에 이르기를, ‘군왕은 장난삼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대왕의 명하심은 잘못되었사오니, 저는 감히 그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제시문은 평강공주와 온달에 관한 설화로, 평강 공주는 어린 시절 울기를 잘하여 바보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야겠다던 부왕의 놀림을 끝이곧대로 믿고 온달과의 결혼을 고집하는 장면을 그린 내용이다.

20.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가치관 형성하기’로, 문장을 독해하여 지시어를 찾는 문항이다. 이 글은 공주가 왕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의 ‘너’는 ‘㉠ 공주’를 가리킨다.

㉡ 대왕 ㉢ 온달 ㉣ 필부 ㉤ 지존

21.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로, ‘食言’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여기서 ‘食言’의 ‘의미는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 말한 것을 지키지 않다.’가 정답이다.

[22~24]

못 처자들에게 묻기를, “무슨 꽃을 가장 좋아하는가?” 하였다. 그러자 누군가는 ‘복숭아꽃’이라 하고, 누군가는 ‘모란꽃’이라고 하여 대답한 바가 똑같지 않았다. 정순왕후가 홀로 말하기를, “면화를 가장 좋아합니다.”하였다. 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른 꽃은 한때만 아름다움에 지나지 않으나 오직 면화는 만백성에게 옷을 입혀 추위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고 하였다.

제시문은 영조(英祖) 임금이 말년에 계비(繼妃) 간택 시에 친히 왕비 후보들에게, ‘무슨 꽃을 가장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정순왕후가 특이하게 ‘면화 꽃’이라는 대답을 하자, 의아해 하는 영조에게 면화의 실용성을 제치 있게 설명하여,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왕비에 간택되었다는 일화이다.

22. ‘어구를 풀이하기’로 풀이 순서에 관한 문항이다. ㉠은 ‘대답한[對] 바[所]가 동일하지 [一] 않다[不]’로 풀이되므로, ㉢이 정답이다.
23. ‘문장의 내용 파악하기’에 관한 문항이다. 정순왕후의 대답은 면화는 결코 다른 복숭아꽃이나 모란꽃보다 예쁜 꽃이 아니므로 상식에 맞는 답은 아니지만, 만백성의 옷감이 되어 추위를 막아 혜택을 주므로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면화가 가장 좋다는 뜻이다. 정답은 ㉤이다.
24. ‘한자어의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로, ‘不過’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의 뜻이 ‘~에 지나지 않다’로 풀이되므로 정답은 ㉡이다.

[25~27]

옛날에 황희 정승이 미천하던 시절에 여행을 하던 중, 길가에서 쉬다가, 농부가 두 소에 멍에하고 밭갈이하는 것을 보고 묻기를, “두 마리 소 중,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니, 농부가 대답하지 않고 밭갈이를 멈추고 와서, 귀에 대고 나직한 어조로 말하기를, “이쪽 소가 낫습니다.” 하였다. 공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니, 농부가 말하기를, “비록 기르는 짐승이지만 그 마음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쪽이 낫다고 하면 저쪽이 못한 것이니, 만일 소가 이 말을 듣게 되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공이 크게 깨달아, 마침내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시문은 황희 정승의 처세훈이 담긴 일화로, 짐승의 경우라도 우열(優劣)의 평가에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농부의 말을 듣고, 남의 장단점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이다.

25.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기’에 관한 문항이다.

㉠의 ‘미시’는 ‘미천할 때 즉 벼슬하기 전’이라는 뜻인데, ‘정오(正午 : 낮 12시)’라고 풀이하였으므로 정답은 ㉠이다. ㉡ 전부 ㉢ 세어 ㉣ 축물 ㉤ 대오

26. ‘문장의 형식을 통해 문장의 뜻풀이하기’로, 제시된 어구의 문장 형식을 파악하여, 이와 문장의 형식이 같은 문장을 찾는 문항이다. ㉡는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는가?’로 풀이되므로 ‘반어형’이다. 정답은 ‘㉣ 기가시기이비인 : 어찌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이다. ㉠ 백문불여일견 : 백 번 말로만 듣는 것이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비교형> ㉡ 수지청척무어 : 물이 아주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가정형> ㉢ 애인

인항애지 :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한다.<평서형> ⑤ 불신희봉우 불
 획호상의 : 벼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면 윗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한다.<가정형> [참고]
 ‘벼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다.’<피동형>, ‘윗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하다.’<피동형>

27.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기’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제시문은 ‘남의 장단
 점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에 관한 이야기인데, ②의 ‘민어사 이신어언’이 ‘일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히 생각해서 하라’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만 앞세우는
 것을 경계한 말이므로, 이와 상통한다. ① 천무구 사인언 : 하늘은 입이 없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③ 교언영색 선의인 : 말을 잘 꾸며 말하면서 겉으로는 암전한 채 하
 는 사람은 어진이가 드물다. ④ 학자소환 유유입지불성 : 배우는 자의 근심거리는 오직 뜻
 을 세움이 성실하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 ⑤ 유무고이아군자 군기신지 : 아무런 까닭 없이
 그대에게 아첨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부디 조심하라.

[28~30]

(가)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중에야 조그맣게 소리 들리누나.
 눈 녹아 앞 시냇물 불리나리니,
 새싹은 얼마나 돋아날까?
 (나) 왜 푸른 산 중에 사느냐고 물어봐도,
 대답 없이 빙그레 웃으니 마음이 한가롭네.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아득히 떠나가니,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에 있다네.

(가)는 봄비를 소재로 하여 생동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읊은 것이다. 기구와 승구의 봄비에
 대한 은밀한 정조와 전구와 결구의 시냇물의 동적인 이미지가 결합하여 봄의 생명력이 잘
 형상화되었다. (나)는 세속을 벗어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삶을 읊은 것이다. 자연
 과 조화된 삶을 영위하면서 그 속에서 인생의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였다. 기구와 승구는
 시인이 자문자답을 통해 자신의 탈속함 심경을 나타낸 것이고, 전구와 결구는 속세가 아닌
 별천지 즉 이상향을 묘사하였다. 전구는 ‘복사꽃이 아득히 흘러가는 곳’으로 단순히 풀이해
 서는 안 되고,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이상향의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결구의 ‘別有天地’와 서로 호응 관계에 있다.

28. ‘한시를 읽고 풀이하기’로, 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의 ‘雪盡’은 ‘눈
 설’, ‘다할 진’으로, ‘눈이 녹다’로 풀이되며, ㉡의 ‘人間’은 ‘인간 세상’으로 풀이해야 문맥에
 맞다. 정답은 ②이다.

29. ‘한시의 형식과 기초적인 특징 이해하기’로, 시의 형식, 대우, 운자, 주제 등을 복합적으
 로 묻는 문항이다. (가)는 5언 4구체로 형식은 오언 절구(絶句), 대우는 이루지 않았으며, 운
 자는 ‘聲’, ‘生’의 두 자뿐이다. 또한 이 시는 봄비를 소재로 하여 생동하는 자연의 생명력
 을 읊은 것이다. 그러므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③이다.

30.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에 관한 것으로, 시적 정서를 묻는 문항이다. (나)는 세속을 벗
 어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삶을 읊은 것이므로, 정답은 ⑤이다.